

웅진케미칼, 이란에 RO막 공급

석유화학 설비 정수처리에 채용 ... 미국·중국·인디아도 공략

웅진케미칼은 이란 국영 석유화학기업 Pars Petrochemical에 내오염성 역삼투분리막(RO: Reverse Osmosis) 필터를 공급기로 했다.

Pars Petrochemical은 석유화학 설비 증설에 필요한 하루 13만톤을 정수하는데 웅진케미칼의 필터를 채용하게 된다.

웅진케미칼은 이란에 대한 납품규모가 국내 정수필터 시장에서 사상 최대라고 설명했다.

내오염성 역삼투분리막은 유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많은 강이나 호수의 물을 정수하는데 효과적인 제품으로 오염성분이 필터 내부에 들러붙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뛰어나 기존 제품보다 오랫동안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웅진케미칼은 1994년 미국, 일본기업에 이어 국내 최초로 제조기술을 개발했다.

웅진케미칼 관계자는 “2010년 미국, 중국, 인디아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해 필터부문 수출액을 2009년보다 300억원 정도 많은 1150억원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6/10>